민주, 검찰개혁 직진…22일 본회의 소집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저지
양향자 "처리 안하면 20명 감옥"
10일 이후 통과땐 새정부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박차를 가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무소속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이 이날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를 강행하는데 집중했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전도 마련해뒀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속전속결 통과를 위해 회기를 나누는 방식인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80명이 찬성하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지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 여당 성향의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이 법안 처리 반대를 선언했고, 민주당 171명 의원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양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지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6석을 가진 정의당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정의당은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숙의 거쳐 종합적 개혁안 마련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거부권' 관련한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이에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광주 서구청장·광산구청장 경선 후보자 각각 3인 압축

29~30일 경선…동구청장·남구청장 경선 시스템 오류로 재투표 차질

'부적격' 판정 시비 등으로 경선 후보자 선정이 늦어졌던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자들이 21일 결정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공관위를 열고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자를 각각 3명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서구청장 경선에는 김보현·김이강·황현택 후보가 나선다. 배인수 후보는 탈락했다. 광산구청장에는 박병규·윤난실·최치현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다.

김학실·윤봉근·이영순 후보는 탈락했다.

경선 후보자들은 오는 26일(서구청장 선거)과 28일(광산구청장 선거) TV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경선은 29~30일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 시민 50%)으로 실시된다.

시당은 이날 광역의원 청년 경쟁선거구로 지정된 서구3·광산구4 경선 후보자도 발표했다. 서구3은 나광엽·이명노·최영환 후보, 광산구4는 김택곤·이귀순·이형철 후보가 경쟁한다. 이곳 경선은 배심원단 투표만으로 이뤄지는 시민공천배심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부터 22일까지 치러지는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재투표가 이뤄지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하도록 했다.

권리당원들이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인증이 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당은 투표 대행업체의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5차례 진행되는 투표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주기환, 화물자동차 노동자 처우개선 등 약속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광주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무진)와 간담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이사장은 화물차 종사자 처우와 화물차 조기 폐차비 지원 개선,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 해결 위한 화물공영터미널 조기 완공, 광주 소재 대기업 물류운송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 후보는 "시장이 되면 실정을 세밀히 파악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터미널 조기완공은 물론 대기업 물류운송에 지역업체가 참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5대 공약 발표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변화의 시작, 시민의 삶을 바꿀 '광주업 광(光)나는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5대 공약의 세부 공약으로 ▲군공항 폐지 ▲광주역 이전 후 푸른길로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장 직접 고용 통한 연봉 4000만원 일자리 3만 개 창출 ▲생활임금 전면 확대 ▲공공기관장 시민검증(청문)제 도입 ▲AI이후 산업 준비 ▲문화누리카드 대상 및 금액 확대 ▲예술인 창작 기본수당 매월 지급 ▲청년 주택, 청년월세 10만원. 신혼 도심 반값 주택 등을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

박혜자 "100원 도시락으로 아침밥 거르는 아이 없게 할 것"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00원 도시락'을 통해 아침밥을 거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청소년기 아침식사는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100원 도시락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100원 도시락'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학교는 장소만 제공해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박 후보는 "'100원 도시락'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꾸려갈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기 아이들 절반 가까이 아침을 거르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다"며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지급해 아이들의 건강과 돌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선, 초등 교무행정 전담제 등 교원업무 경감 정책 제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초등학교 교무행정 전담교사제, 중고등학교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도입, 학교업무지원센터 설치 등 교원업무 경감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이라는 교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무행정지원팀 운영과 관련, "소속 교사가 더 많은 행정업무를 맡고 있지만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팀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교무행정 전담교사는 일정 기간 수업이 아닌 교무업무만 전담하여 일반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서구 청년 499명, 황현택 서구청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황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서구에 거주하는 김승리 등 499인의 청년들이 '청년의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바꿔줄 적임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구에서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예비후보는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인 부분과 시대정신인 공정 부분과 취업이라 생각한다"면서 "자치단체가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 기반 제공, 건전한 노동 통한 사회 기여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